



특명 15

페르시아 왕가 보물의 비밀

글 윤신영 그림 김준



18세기 중국 청나라.

두둥



전세계 200개 나라들이 모여 운동 실력을 겨루는 '오륜경기'가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게 됐다.

지난 줄거리 : 검은별 그레이스 박사는 자신의 로봇을 되찾기 위해 직접 지구로 날아온다. 그러나 스틸로는 그레이스 박사의 광선검을 보고 그가 붉은 별의 무헤드임을 알아챈다. 한편, 300년 전 조선에서도 스틸로와 뿌야중, RS-8호의 조상들이 마주친 사건이 있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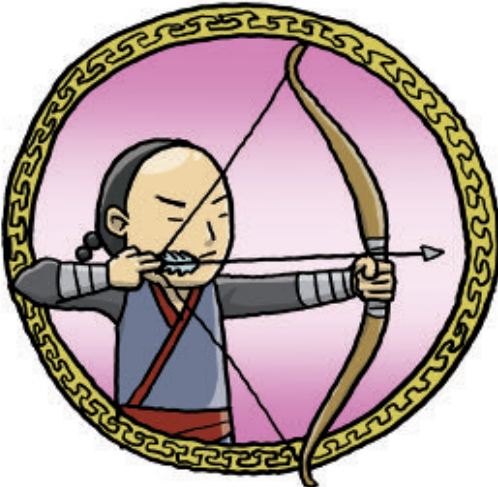
경기 종목은 현대의 올림픽과 비슷하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를 겨루는 축지법.



물살을 가르고 섬에 먼저 도착해야 하는 수영.



명사수를 뽑는 활쏘기.



단체 공놀이.



이런 경기를 보려고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오륜경기에서 우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상은 이웃 페르시아 왕국에서 보내 준 황금 트로피.



그러나 개막식이 열리기 며칠 전 새벽,  
사건이 발생했다.



페르시아 왕이 직접 보낸 황금  
트로피를 도둑맞은 것이다.



관군이  
온다,  
저쪽으로  
가자!



후다닥



유일한 목격자는 조선국 전구면  
전구리에서 온 선비 '수치로' 선생.



왜나라의 밀정들이구나.  
저리 급하게 어딜 가나?



응? 저 둘이  
떨어뜨린 건가?



떨어뜨리려면  
슬모 있는 것이나  
떨어뜨릴 것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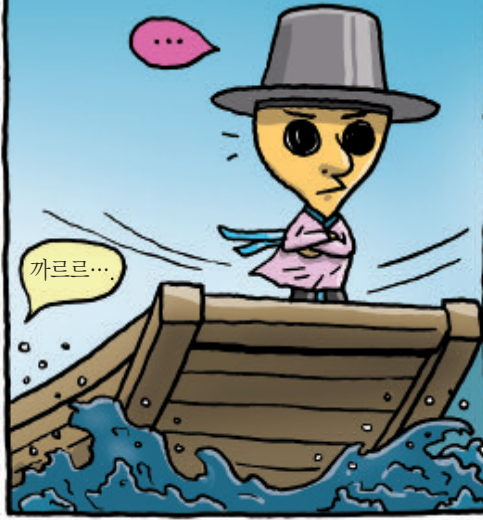








수치로 선생은 오륜경기 관람도 포기한 채  
주운 천 조각을 품고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 ■ KIST 특성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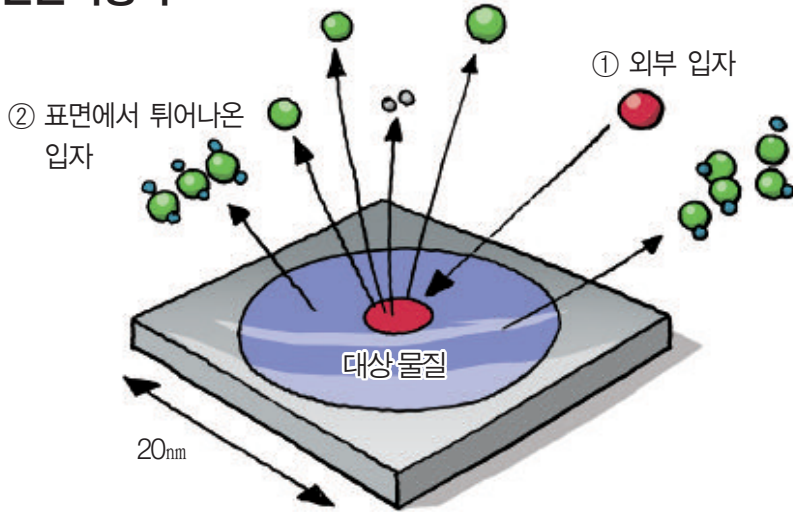
현대는 화학과 생물학의 시대! 모든 물질을 아주 작은 입자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그 물질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작은 입자를 확대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고,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분석해 그 안에 포함된 물질을 분류하는 일입니다. KIST 특성분석센터는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특성분석센터에서 하는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 ① 표면분석장비를 이용한 물질 분석
- ② 유해물질 분석
- ③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 ④ 핵자기공명장치(NMR)를 이용한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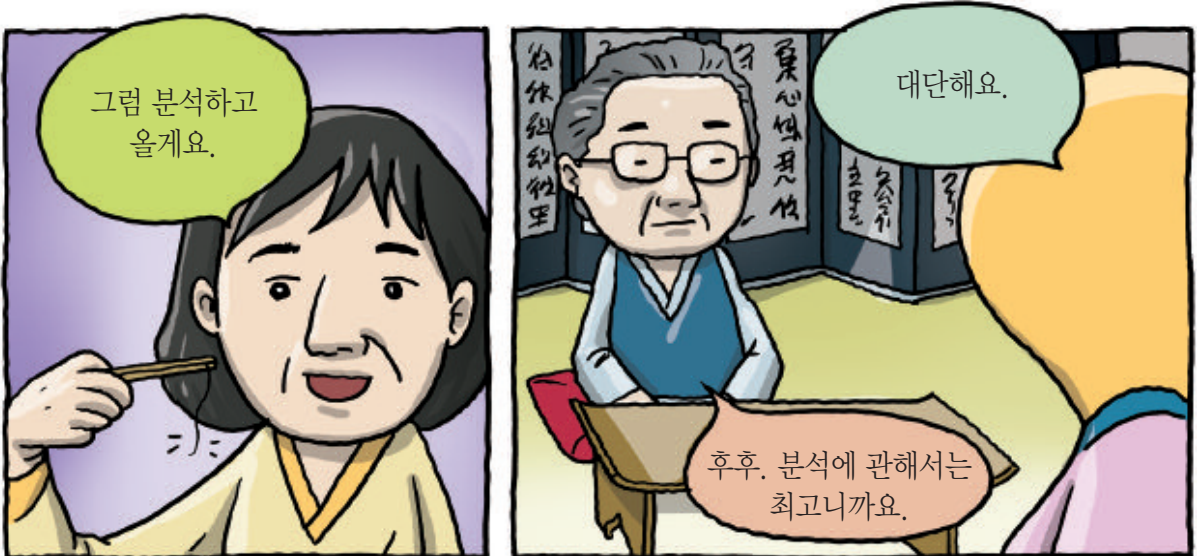
## ■ 초미세표면분석장비



KIST 이연희 박사팀은 ‘표면분석장비’를 이용한 연구의 전문가예요. 표면분석장비는 물질의 표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 내는 기계예요. 물질 표면은 내부와 달리 공기 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산화와 같은 화학 변화를 쉽게 일으키죠. 따라서 내부를 분석하는 연구와는 다른 분석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표면분석장비는 어떤 외부 입자를 쓰는지에 따라 반도체, 유기물 등 다양한 물질을 연구할 수 있어요. KIST 이연희 박사님은 표면분석장비로 500년이 넘은 직물의 염료 성분을 분석하기도 했고, 지워진 글자를 찾는 방식으로 범죄 수사를 돕기도 했어요. 표면분석장비는 크게 세 단계로 물질 표면의 성분을 분석해요.

- ① 외부 입자를 시험하고 싶은 물질 표면에 쓰면,
- ② 물질의 표면에 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가 튀어나와요.
- ③ 이걸 모아 분석하면 입자의 성분비를 알 수 있고, 성분비를 통해 물질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지요.





\*흑성(흑성): '검은별'이라는 뜻.



300년 전 조선의 수처로 선생은 과연 '흑성' 조직의 음모를 막아 낼 수 있을까?

